

식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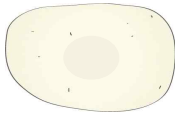


이달의 세계음식 '빵'

1. 빵의 기원

동양인의 주식은 밥이라면, 서양인의 주식은 빵이다. 그렇다면 빵은 언제부터 서양 사람들의 주식이 되었을까? 그 역사는 아주 오래 전인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 한 곳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서 밀과 보리, 수수 같은 곡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곡물을 갈아 죽 형태로 만들어 먹다가 약 6천 년 전부터 납작하게 구운 빵을 만들어 먹었다.

기원전 2500년경 피라미드 벽화에서도 빵을 구워내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기원전 5세기에 이집트를 방문했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기록에서도 이집트 사람들이 빵을 주식으로 먹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의 빵은 밀가루에 물을 넣고 반죽을 만들어 동글납작하게 빚은 다음, 뜨거운 바윗돌

위에 올려 구워내는 아주 단순한 형태였다. 그러다 이집트인들이 우연히 '이스트(효모균)'를

발견하게 되면서 폭신폭신히게 부푼 빵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스트를 넣고 만든 빵이 부푸는 현상은 밀가루를 반죽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글루텐 단백질 사이에 이스트가 번식하여 만든 가스(이산화탄소)가 차오르면서 폭신폭신히게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후 여러 가지 새로운 제빵 기술들이 탄생했고, 직업 제빵사들은 약 40여 가지의 빵과 과자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아프리카 북단에 자리 잡고 있어 유럽 남부지역과 가까운 이집트의 음식문화는 그리스 로마시대에 영향을 주었고, 중세 유럽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유럽인들이 빵을 주식으로 먹게 된 기원이 되었다.

2. 장발장이 빵 하나 훔친 죄로 19년간 복역한 이유

소설 「레미제라블」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겨우 빵 하나 훔쳤을 뿐인데……. 그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한번쯤 품어봤을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빵을 훔친 죄로 5년, 4번의 탈옥을 시도한 죄로 19년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긴 하나 아무리 소설 속 이야기라 하더라도 과한 설정이 아닌가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소설이 만들어진 프랑스의 역사적 배경과 역사 속 빵의 의미를 되짚어본다면 어떨까.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지만, 사실 아무나 먹고 싶은 빵을 먹을 수 있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프랑스 혁명(1789년 1794년) 이후에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신분에 따라 먹을 수 있는 빵의 종류가 달랐다. 빵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닌 신분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농부나 시민들은 검고 딱딱한 빵만 먹을 수 있었고, 희고 부드러운 빵은 귀족들만 먹을 수 있었다. 당시 귀족들은 농부는 열등한 존재라서 딱딱한 빵을 먹어야 더욱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다. 부드럽고 흰 빵은 연약한 소화기능을 가진 귀족들을 위한 것이므로 농부나 시민들이 부드럽고 흰 빵을 먹으면 사회적 윤리와 기강을 해치는 범죄라 여겨 엄하게 처벌했다.

3. 차별받지 않고 빵을 먹을 수 있는 권리

프랑스혁명 당시 시민들은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구호를 외쳤고, 왕비 마리앙투아네트는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를 먹어라’라고 답했다. 브리오슈는 밀가루·버터·달걀·이스트·설탕 등

으로 만드는데 버터와 달걀이 많이 들어가서 맛이 고소하고 달콤하면서 매우 부드러운 고급 빵이다.

밥을 주식으로 하는 동양에 빗대어 알기 쉽게 표현해보자면 ‘굵어죽게 생겼으니 밥을 달라’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밥이 없으면 영양밥을 먹어라’라고 답한 꼴이다.



혈세로 사치와 향락을 누렸던 그들이 굶주림으로 생사가 오가는 시민들의 고통에 대해선 얼마나 무지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시민들이 갈구한 빵은 그들에게 허락되었던 딱딱하고 검은 빵이 아닌 부드럽고 흰 빵이었다는 설도 있다. 검은 빵은 톱밥이나 진흙, 도토리, 나무껍질 등을 몰래 넣고 만들어도 알기 어려웠다.

농민과 시민들 사이에선 부드럽고 흰 빵을 먹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있었다.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갖고자 했던 프랑스혁명이 시작된 지 4년 후, 프랑스 왕정인 구정권(앙시앵레짐)이 해체되고 국민공회에서는 ‘빵의 평등권’을 만든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빵 먹을 권리를 놓고 차별하지 않으며, 시민 모두를 위해 질 좋은 빵을 생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빵의 길이와 무게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도 되어있었다. 빵의 평등권은 1793년 11월 15일 국민공회를 통과해 최종 비준만 남겨 놓은 상태였지만 공식적으로 선포되지는 못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랑스 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빵의 평등을 굳이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이견 대립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차별받지 않고 빵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선언적 의미에서나마 확보된 것이 불과 200여 년 전이라니 빵을 먹기 전에 현대를 살아가는 것에 감사함을 느껴야겠다.



- [출처] : 1. 음식을 바꾼 문화, 세계를 바꾼 음식(2003)/ 김아리 지음
2. 그림에 차려진 식탁들(2015)/ 이여신 지음
3. 음식이 상식이다(2015)/ 윤덕노 지음
4. 인류 역사에 담긴 음식문화 이야기(2017)/ 린다 시비텔로 지음